

Epilogue File



반드시 게임 종료 후 여십시오.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를 포함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해답편: 심판

긴 복도의 간이 의자 위에 두 남녀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남자를 바로 보지 않고 정면의 작은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테라스에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오 선생님을 살해한 거라고 생각했죠. 일단 집 밖에서 절벽으로 통해 침입하는 건 불가능하니, 제 방이나 주방, 혹은 가사도우미의 방을 통해서 범인이 이동한 거라고요. 시간상 이 방법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은 저와 진상 씨, 둘 뿐이죠. 저라면 남이 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테라스로 넘어갈 수 있고, 진상 씨는 계속 거실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현관문 앞에서 아저씨와...”

‘아저씨’라고 말하고 나서 그녀는 저도 모르게 놀라 흠짓 숨을 삼켰다. 그녀는 조용히 남자를 돌아보았지만 남자의 눈은 눈앞의 벽을 바라보고 있을 뿐 특별한 미동이 없었다.

여자는 눈을 다시 앞으로 돌렸다. 그렇다. 이제 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 1996년과 2016년은 다르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있던 그 30분 말이에요.

그 집은 현관에서 거실 왼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현관에서의 사각을 통해, 예를 들면 제 방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죠. 그 외에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나 진상 씨가 남몰래 테라스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건 테라스에서 선생님 방으로 침입하는 문제인데,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유리문을 깨고 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유리문이 깨져 있었을 가능성.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밖에서 유리문을 깬다고 보기엔 남은 흔적이 이상하더군요. 유리문 바깥쪽에 남은 흔적 말이에요. 우선 유리문을 맨손으로 깬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유리문의 두께 때문이 아니라, 다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부분은 상처가 남겠죠. 운 좋게 큰 상처 없이 유리를 깨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파편을 모두 피할 수는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없을지언정 팔 어딘가에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기색은 누구에게도 없었어요. 물론 꼭 손이어야 하는 건 아니니 발로 차서 깬다는 가설도 성립은 하겠죠. 마침 아저씨의 발에 피가 묻어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억하시죠? 남몰래 테라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 저와 진상씨뿐이에요.

그러나 바깥에서 유리문을 깬다면, 유리를 깨는 데 사용한 도구가 있어야 해요. 그 도구엔 유리의 잔해가 남아있겠죠. 현장에 남아있던 물건 중 그런 흔적이 있는 건 빗자루와 모포뿐이에요. 하지만 빗자루는 확실히 아니에요. 보셔서 알겠지만 그 빗자루는 뭔가를 때려서 깨는 데 적합한 물건은 아니죠. 짚으로 만든 물건인걸요. 마찬가지로 약하기는 하지만, 모포는 의외로 적합한 물건이죠. 다른 도구가 결합한다면요. 예를 들어 손 같은. 모포를 팔에 칭칭 감아서 팔이 다치지 않게 대비하고 손으로 유리를 깬다거나, 아니면 아예 유리를 모포로 덮은 다음 그 위에서 도구나 손으로 때려 유

리를 깬다거나. 모포에 남은 흔적이거나 현장 상황을 볼 때는 후자였던 것 같지만요. 아마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우리가 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소리를 줄여보려고 모포를 덮고 깬거죠. 그런데 이 작업을 문밖에서 했다고 가정하면 유리문 밖에 남은 흔적이 설명되지 않아요. 테라스 바닥에 남은 유릿가루들 봤죠? 날카로운 조각이라면 모를까, 그 작은 가루들이 두꺼운 모포를 뚫고 테라스로 튀어나왔다는 건 믿기 힘드네요. 물론 유리문 안쪽에도 유리 조각들이 안쪽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지만, 유리 조각 정도야 옮기면 그만이니깐요. 빗자루 같은 걸로 한번 쓸면 되겠죠. 빗자루에 남은 흔적은 그렇게 생긴 걸 테고요. 하지만 반대로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작은 가루들만 골라내어 밖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걸요. 그러니 유리문은 안에서 깨뜨렸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모포도 빗자루도 원래는 방 안에 있었던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보니 그 빗자루, 실은 선생님이 수제 빗자루 명인에게 선물 받았다는 고가 공예품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처음 가져왔을 때는 쓰레받기도 없는 빗자루가 무슨 소용이야 싶었는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었네요. 참 사치스러운 비질이지만요.

어쨌거나 그러면 테라스 진입설의 가능성은 하나만 남아요. 오 선생님 자신이 모포와 망치를 사용해 안에서 유리문을 깬고, 우리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지나 진상 씨가 들어가 선생님을 살해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그 모포요. 모포가 시체 위에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무릎 위에 모포를 덮고 있다가 칼을 맞고 쓰러졌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앞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시체가 스스로 모포를 덮을 수는 없을 테니 결국 사후에 모포가 한차례 이동했다는 증거죠. 그것도 유리를 깨기 위해서요. 하지만 시체가 유리를 깰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누군가 테라스에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오 선생님을 살해했다”라는 가설은 애초에 틀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유리문을 누군가가 방 안에서 깬다는 사실만은 확실해졌으니까요.

테라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진입 경로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방문이죠. 방문이 잠겨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사후의 일이에요. 방문 손잡이가 버튼식에다 결쇠가 전형적인 방문용이었죠? 이런 식의 문은 안에서 버튼을 눌러두고 밖으로 나가 닫으면 쉽게 잠겨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문이 열려 있었고, 문이 잠긴 것은 선생님의 사후라면 모순이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방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깬다. 이 가능성만 남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물론 세 명 모두죠.

그러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선생님을 여러 차례 찔러 죽이고 유리를 깬 뒤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등의 자상 중 치명상은 최초의 하나, 나머지는 사후에 찔렸다고 이야기했죠? 물론 사후에 찔른 자국은 아마 전부 제가 낸 자국이예요. 제가 찌르기 전에 이미 선생님이 숨이 붙어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치명상이라는 게 동맥은 건드리지 않고 정맥을 찔렀단 말이죠. 그것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동맥과 정맥은 찔렸을 때의 결과가 달라요. 압력이 다르니까요. 일반적으로 체내 혈액의 30% 이상을 잃으면 위험해진다고 하지만, 동맥을 찌르면 5분도 못 버틸 거예요. 그 전에 쇼크사로 죽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맥 출혈은 상황이 달라요. 피가 충분히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항응고제를 먹었다고 해도 그건 지혈을 막아줄 뿐이지 출혈 속도를 올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이 방법은, 1시간이라고 치죠. 이 방법이 가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망 시각을 11시~12시로 가정하면, 우선 아저씨는 배제돼요. 11시 반 이전과 12시 이후에만 범행이 가능했던 지도 배제되고요. 거실에서 목격된 시간이 긴 진상 씨도 배제됩니다. 이걸 이상하네요. 누구도 범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범행 시각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정을 버려야 해요. 범행 시각이 11시 이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두 가지 사실이 보이더군요. 하나는 아저씨는 절대 범인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유리문이 깨진 시각은 범행 시각보다 훨씬 뒤라는 것. 즉, 유리문을 깨 것과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살인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국소 마취제와 항응고제겠죠. 마취제는 주사기로, 항응고제는 알약으로 투여했구요. 왜 두 개의 약이 투여방식이 다른 걸까요? 왜 국소마취였을까요? 알약을 먹지 못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주사제로 투여하는 게 낫죠. 반대로 등에 국소마취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그냥 정신을 잃게 하는 게 쉬워요. 강제 행위라면 말이죠. 국소마취를 선택한 이유는 '정신을 잃으면 곤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살해 대상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항응고제가 왜 주사제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가 가요. 살해 대상, 즉 선생님 스스로 준비했다고 말이죠. 즉, 이 범행의 의문점은 살해 대상이 살인에 적극 협력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풀리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입 경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문이든 유리문이든 살해 대상이 기꺼이 열어줄 테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선생님은 마치 자신이 오늘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방에 도배를 다시 하라는 말. 그건 벽의 금고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금고에는 유언장이 들어있었죠.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유언장의 위치를 밝히려려고 한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에 이미 등에 칼이 꽂혀있었다면? 선생님이 방 안을 등지고 서 있었던 이유가 방 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등을 보여주지 싫어서였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야말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면?"

"하나 더 있어."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남자가 불쑥 입을 열었다.

"유언장에 대한 힌트를 가사도우미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짐작하게 만드는 다른 사실이 있지. 예지에게 유언장에 대해서 죽기 전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것 말이야. 그렇다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도 비밀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 예지는 공범이 될 수 없어. 게다가 예지가 공범이었다면, 죽은 후에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야. 죽기 전에 주는 게 낫지. 아무리 완전범죄를 확신했다고 하더라도, 진범이 잡힐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만약 예지가 범인으로 판명된다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유산을 받지 못하니 유언장에 뭐라고 써있어도 유산은 국고로 들어가겠지. 그 양반이 예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면 좀 더 신중을 기했을 테고, 그러니 예지는 범인일 리가 없지."

여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잘 아시네요. 그런 쪽으로만. 맞아요. 저는 범인일 리가 없고, 아저씨는 범인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의심스러운 건 진상 씨뿐이에요. 모든 불가능한 가설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는..."

남자가 가로채듯이 말을 받았다.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진실이다."

여자가 쓰게 웃었다.

"별로 믿기 어려운 진실도 아니었어요."

눈앞의 작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여자는 복도로 빠져나가는 군중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녹음내용 말이예요. 충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아마도 인형 속의 도청기로부터 수신받은 파일이겠죠. 다소 음질이 안 좋긴 하지만,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상대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딱 하나만, 분명 오 선생님 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고 있었거나, 아주 조그맣게 말한 거죠. 왜일까요?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 가지 추측을 해봤어요. 첫째로, 그 사람은 도청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둘째로, 행여라도 그 녹음 파일이 새어나갔을 때, 대화 상대가 자신이라는 사실만큼은 숨기고 싶었다. 첫 번째 사실은 그 사람이 도청기의 주인, 즉 진상 씨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 사실은 그 대화가 다름 아닌 범행 계획에 대한 것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해주구요. 그렇다면 그 대화에 나온 내용,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죠. 시체가 발견되기 5시간 전에 오 선생님의 방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진상 씨겠죠. 그렇다면 그 만남에서 최종 교정이 끝난 교정지를 받아오지 않은 이유도 짐작이 가요. 아마도 최종 원고가 오 선생님의 사후에 발견되기를 원한 것이겠죠. 그쪽이 더 드라마틱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문 안에서 정복을 입은 남자가 나와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개정합니다."

남녀는 대화를 멈추고 의자에서 일어나 방청석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앉았다. 잠시 후 재판장이 등장하고, 장내에 침묵이 감돌았다. 재판장은 조용히 개정을 선언했다.

예지는 눈을 들어 피고인석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멍한 눈으로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홍학규. 오랜 시간 부모 대신이었던 사람. 그는 지금 유명 작가인 오종탁을 살해한 혐의로 그곳에서 있었다. 감정을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 1996년과 2016년은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르다. 예지는 맞잡은 손을 기도하듯 꼭 쥐었다.

진상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옆자리에서 지켜보며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내가 보기엔 이쪽이 더 드라마틱한데 말이지..."

후일담: 선택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6달이 지났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신간 출간을 앞두고 살해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건이 20년 전의 미제 사건과 얽혀있다는 점 때문에 세간은 이 사건에 대한 설왕설래로 들썩였다. 언론은 온갖 추측을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그중에는 사형 집행 운운하는 자극적인 기사들도 있었다. 그 범인이라는 것은, 물론 구치소에 구속되어있는 홍학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홍학규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기에 무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요원했다. 감식 결과 피해자가 다임메 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다임메시지가 홍학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었다. 현장에서 홍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일한 의문으로 남아있긴 했지만, 경찰은 현장의 테라스 너머는 절벽이니, 범인이 절벽 아래로 홍기를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절벽 아래 일대에 대한 수색 작전에서도 홍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홍학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무죄를 홀로 허공을 향해 외쳐온 결과, 첫 공판 때 홍학규는 이미 혼이 빠진 껍데기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다.

오종탁의 신간, <리로드>는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이어서 20년 전 사건의 생존자이자, 오종탁의 사실상의 양녀라고 알려진 여성이 회고록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물론 발행처는 도서출판 노루목이었다. 하지만 온갖 화제와 흥행에도 불구하고, 오종탁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거의 없었다. 그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 그저 그는 하나의 '기록'으로 대우받을 뿐이었다. 도서출판 노루목이 출연한 돈으로 오종탁의 무덤만은 그럴듯하게 지어졌지만, 그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기억이라는 건 참 이상하네요.”

예지는 묘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중얼거렸다.

“선생님이 살인자라는 것도, 아저씨가 저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좋았다는 것도, 전부 명확한 사실이고 저는 그 사실을 푹푹히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덤이 대답을 할 리는 없지만, 그녀는 잠시 대답을 기다리는 듯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네요. 제가 보았던 건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 경찰이 선생님을 살인자로 수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저씨가 언제나 저를 지켜보았다는 사실뿐이었네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여덟 살짜리 꼬마의 해석을 여태 기억했을 뿐이고요.”

스물여덟 살이 된 예지의 머릿속에는 이제 다른 해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마치 여덟 살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스물여덟 살이 된 것처럼, 갑작스럽게. 어머니는 아버지의 강압에 눌리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경찰은 어떻게든 용의자를 빨리 특정해야 했던 것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저씨는...

“감정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아저씨에게 유죄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깔끔하게 미워지지는 않아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해석은 몰라도 감정만큼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진상 씨의 제안대로 하기로 했어요.”

진상의 제안. 이대로 홍학규를 범인으로 재판장에 보내자는 것. 말 그대로 위증이었다. 그것이 홍학규가 받아야 할 인과 응보라고, 그렇게 그는 설득했다. 그렇지만 진상의 제안을 예지가 받아들인 것은 응보나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그게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을 맴돌긴 하지만, 예지도 결국 세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종탁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 그의 뜻을 방해하지 않는 것 정도였다. 그것을 예이라고 해야 할지 사과라고 해야 할지는 헷갈렸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종탁은 그녀에게 분명히 그것을 지켰으니까.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말이다.

예지는 잠시 무덤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저 더 할 말이 없었을 뿐이다. 종탁과는 할 이야기가 없었다. 나눌 추억도, 공유할 관심사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종탁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람 대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이미 종탁이 시체가 된 이후였으니까.

긴 침묵이 지난 후, 예지는 몸을 일으켰다.

“또 올게요.”

또, 언제가 좋을까. 오늘은 오종탁 살인사건의 첫 재판 날이라는 핑계로 왔다. 다음에도 구실이 없으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다. 언제가 좋을까. 다음 재판 날? 아니면 내 책이 출간되는 날?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은 진상의 제안이었다. 진상은 줄곧 오종탁을 위해서라는 구실을 들먹였고, 예지도 그동안의 삶의 목적, 그러니까 부모님의 복수라는 목적이 어이없이 사라져버린 만큼 뭐가 되었든 당장 몰두할 것이 필요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진상이 하나하나 조언해주고 틈틈이 찾아오며 체크해준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초고가 완성된다. 물론 진상의 그런 과한 관심이 순전히 호의라고 믿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여덟 살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조차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물여덟 살의 한 예지는 마음먹었다.

“신의 것은 신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틀림없이 용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예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곱씹었다. 종탁이 살아있었다면, 그 말로 말문을 띄워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무덤은 말이 없었다.